

tvN '신데렐라와 네명의 기사'

익숙한 듯 새로운 청춘 드라마

‘로맨스+가족만들기’

속도감 있는 전개도

막대한 부를 쌓은 재벌 회장의 유일한 고민 거리는 세상을 떠난 세 아들이 각각 남긴 손자들이다. 반항을 일삼는 동갑내기 손주들 때문에 골치를 썩이던 회장은 우연히 만난 아가씨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다.

대저택에 들어와 삼 형제를 사람답게 바꿔달라는 것.

사촌지간인 강지운(정일우 분), 강현민(안재현), 강서우(이정신)와 은하원(박소담)의 한집 아래 청춘 로맨스인 tvN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는 그렇게 출발한다. 여기에 이들을 돌보는 집사 이윤성(최민도) 기사로 가세한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때문에 좀처럼 결을 내주지 않는 강지운과 에너지 넘치는 은하원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기동 좋거라다.

제별 3세 남주인공과 신데렐라로 탈바꿈하는 '캔디형' 여주인공은 전형적인 로맨티 코미디 설정이다.

이 드라마는 가난한 여주인공과 부잣집 아들 4인방이 등장하는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2009)도 떠올리게 한다.

연출을 맡은 권혁찬 PD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흔한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연기자가 요즘 시대에 맞는 캐릭터로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게 보여주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들이 그 부분을 잘 소화했어요. 익숙한 소재와 구조라 초반부에 설명할 필요 없이 이야기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도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다. 권 PD는 "로맨스뿐 아니라 '가족 만들기'에도 초점을 맞췄다"면서 "피는 섞였지만 남보다 못한 세 사촌과 은하원이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흥미롭게 봐 달라"고 주문했다.

10년 전 MBC TV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고등학교 윤호로 등장했던 정일우(29)는 이번 드라마에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스무



살 역할을 맡았다.

그는 다소 민망한 표정으로 "다치지 않던 피부과도 가고,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고 털어놓았다.

정일우는 자신이 맡은 강지운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외로움을 가진 '아웃사이더'라고 소개했다. 혼외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를 잃고 혼자 자라난 강지운은 재벌인 조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재벌 3세가 된다.

최근 배우 구혜선과 결혼한 안재현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인 결혼이라는 걸 한 후 드라마를 찍으니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다"면서 "그분(구혜선)의 내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정신은 "배우일 때는 배우로 보이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서 가수임에도 가수 역할을 하

는 게 두려웠다"면서 "그래도 강서우 캐릭터와 제가 닮은 면이 있어서 연기하기 편한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청률 공약 질문을 받은 정일우는 드라마 제목에 걸맞게 시청률 5% 돌파 시 기사식당에서 팬들을 대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1시15분에 방송되는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100% 사전 제작됐다.

권 PD는 KBS 2TV '함부로 애틋하게' 부진으로 사전제작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제기된 데 대해 "성공 사례도 실패 사례도 있지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대세 아이돌’ 지코·설현 열애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



설현

지코

‘대세 아이돌’인 블라비의 지코(24)와 AOA의 설현(21)이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0일 “힘든 시기에 서로 의지하면서 호감을 갖게 됐고, 서로 편안하게 지내는 가요계 선후배 사이다. 앞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교제 사실을 밝혔다.

지코의 소속사 세븐시즈는 “현재 알아가고 있는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연예계에 수개월 전부터 퍼졌으나 양측 소속사는 확인 때마다 “그냥 친한 사이인데 열애 소문이 퍼졌다”고 부인해왔다.

이미 각종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지코가 솔로곡에서 설현을 연상시키는 가사를 담았으며 열애설이 제기돼 팬들의 궁금증이 일어난 상태였다.

복수의 가수들도 “지코가 지인들과의 만남에 설현과 함께 지리해 이미 지코의 음과 패밀러들은 둘의 교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사진이 찍히지 않는 한 부인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한 인터넷 매체에 데이트 사진이 포착되자 결국 애매모호하게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매체는 두 사람이 5개월 넘게 교제 중으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한강과 지코의 집 등지에서 데이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설현이 역사 지식 부족 논란으로 힘들 때 지코가 힘이 됐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현재 가장 핫한 아이돌 스타의 만남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코는 블라비와 솔로로 활동하며 출중한 랩 실력과 프예듀싱 재능까지 갖춰

아이돌 인재로 인정받고 있다. 미스에이 수지의 뒤를 잇는 스타로 평가받는 설현은 예쁜 외모와 늘씬한 몸매로 주목받으며 최고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이다.

이들을 비롯해 올해 가요계에선 아이돌 가수들의 열애 소식이 잇달았다. 엑소의 카이와 에프엑스의 크리스탈, JYJ의 김준수와 이엑스아이디의 하니 등 대세 아이돌이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고, 에프터스쿨의 유이가 배우 이상윤과의 교제 사실을 밝혔다.

사실 아이돌 가수들이 공개 연애를 하는 것은 불과 몇년 전까지 흔한 풍경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기획사가 아이돌의 사생활을 제약하지 않고 동료들과의 교제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팬들 역시 예전처럼 좋아하는 스타의 열애에 크게 반발하지 않으며, 광고계도 스타의 열애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울러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인터넷 매체가 생겨나면서 이들의 데이트 현상이 포착되기 시작했고, 스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

지금은 결별한 사이지만 엑소의 백현과 소녀시대의 태연, 2PM의 닉쿤과 소녀시대의 티파니, 비스트의 용준형과 카라의 구하라도 데이트 현상이 알려지며 공개 연애를 하기도 했다.

한 아이돌 기획사의 대표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선남선녀의 교제를 막을 수는 없다”며 “대신 조심스럽게 만나도 현장만 포착되지 말고도 조연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5:00 여기는 리우(남자축구, 양궁)	00 2016 리우올림픽(펜싱)	10 리우 2016 (유도)
7	40 2016 리우 올림픽 (핸드볼(여) 조예선)	00 여기는 리우(펜싱)	50 2016 리우올림픽 (여자 배구, 펜싱, 여자 핸드볼)	00 리우 2016 모닝와이드 20 리우 2016(펜싱, 핸드볼, 배구)
8				
9	30 KBS 뉴스	15 여기는 리우 (여자배구 조예선, 수영)		
10	00 2016 리우 올림픽 (축구(남) 조예선)		30 2016 리우올림픽(수영)	
11				00 TV블로그 컴지락 05 아이엠 홍나 35 위대한 유산 55 닥터365
12	00 KBS 뉴스 12	10 일일드라마(여자의 비밀)(재)	00 MBC 정오뉴스 20 2016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탐승 꿈꾸우)	00 SBS 12 뉴스 20 리우 2016 하이라이트
1	00 2016 리우 올림픽 중계식			
2		00 KBS 뉴스타임 10 수상한 휴가 (재)	00 가화만사성	00 TV블로그 컴지락 05 나홀로 세계여행 55 닥터365
3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이해! 동물탐험대 2 55 책갈피 요정 모모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감성애니 하루 05 올림픽 특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25 워킹맘 육아대디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안녕! 괴발개발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뉴스	00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올림픽 투데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여름특집 KBS 대기화 (디렉터스컷)	50 일일드라마(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컴지락 20 일일드라마(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여기는 리우(골프, 양궁)	55 2016 리우올림픽 (양궁, 배드민턴, 펜싱, 남자골프)	00 리우 2016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리우 2016 (골프, 펜싱, 양궁, 유도)
9	00 KBS 뉴스9			
10	00 2016 리우 올림픽 (골프, 양궁, 유도)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11	00 KBS 뉴스라인 50 2016 리우 올림픽 (사격, 펜싱)	10 해피 투게더		
12		40 여기는 리우(골프, 유도)	00 2016 리우올림픽 (펜싱, 남자골프)	30 리우 2016(골프, 유도)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05:30 건강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차차 기행 - 푸젠, 저의세계화)	(치킨게사디아, 방울토마토절임)	15:50 바오발성의 파오파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꿈디와 친구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6:10 세계의 눈	12:10 통일의 길	16:45 똥똥똥 유치원1~3(재)
07:00 지파티스	12:40 지식채널 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7:30 꼬마버스 타요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7:45 뽕뽕똥 뽕뽕(재)
07:45 뽕뽕똥 뽕뽕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08:00 똥똥똥 유치원 1~3	13:50 이암 스페이스 정글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00 코코몽2	19:30 EBS 뉴스
09:00 꿈디와 친구들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모피와 친구들	(나의 가족 미디어중독 탈출기 - 스마트폰 없이 여행하기 외)
09:40 달라졌어요	15:10 세계사 시간여행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1일(음 7월 9일 乙丑)
<p>子 48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아니 되느니라. 60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72년생 사사라도 고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 있다. 84년생 가급적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7, 93</p>	<p>午 42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54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66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한 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78년생 진정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 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72, 39</p>
<p>丑 49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61년생 상당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73년생 정소를 함께하고는 있지 만 마음은 따로따로이다. 85년생 한 번 뽕은 맑은 주위 땅을 수 없는 법이니 삼시일일 하자. 행운의 숫자 : 32, 55</p>	<p>未 43년생 자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5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67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 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79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줌 이 결과적으로 나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15</p>
<p>寅 50년생 형세의 복잡다단함을 먼저 헤아려 볼 일이다. 62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74년생 벌어진 틈을 때우지 않으면 이탈될 수밖에 없다. 86년생 현재 상태대로만 진행하면 더할 나위 없었다. 행운의 숫자 : 16, 89</p>	<p>申 44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56년생 원인을 분명 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68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 떠한 화도 비껴갈 것이다. 80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9, 23</p>
<p>卯 51년생 명분에 그친다면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63년생 지속 시 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라. 75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 는 역할은 미미하다. 87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80</p>	<p>酉 45년생 오랫동안 진행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해야겠다. 57년 생 예상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69년생 복잡해졌 것 같 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81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 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행운의 숫자 : 99, 52</p>
<p>辰 40년생 이동수나 매매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52년생 관계의 개선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64년생 잘 되어 갈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6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의의 것이다. 88년생 살펴보면 여실하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42, 29</p>	<p>戌 46년생 흡사해 보이지만 근본 원인부터 다름을 알아야 한다. 58 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되리라. 70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82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8, 69</p>
<p>巳 41년생 절할 기회가 없어서 몹시 생소할 것이다. 53년생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 65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자. 77 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내라. 89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37, 58</p>	<p>亥 47년생 마주 보고 대화할 쉽게 풀 수 있다. 59년생 핵심에서 벗 어나면 그만큼 손해로 이어진다. 71년생 도모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83년생 햇대에 동지고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9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